**[교열 완료]**

“머리는 취업하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르고 있어요. 특이한 스타일을 하면 일상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겨요. 예술가냐는 물음도 많이 듣고,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한번은 사진전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진기를 들고 온 관람객들이 찍어봐도 되냐고 하곤 나중에 사진을 보내주는 일도 있었죠. 42서울에선 피신 끝나는 날에 처음 보는 분이 “형님 저 팬입니다" 이러면서 제 자리로 찾아 왔어요(하하). 평가도 안해본 분이었는데 프로필 사진만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머리를 길러보고 싶었다면서. 자기는 본과정 안 할 거라서 앞으론 못 볼 텐데 그 전에 꼭 인사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길러보고 나중엔 잘라서 기부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풀면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와요.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남자 긴 머리 스타일링의 한계는 딱 어깨 정도예요.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참고할만한 스타일이 없어요. 외국 사진 조차도요. 파마를 하면 어떨까 궁금하지만, 시도했다가 망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죠. 또, 기부하려면 머리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이전에도 단발 정도로 머리를 기른 적이 있는데 군대에 가게 되며 잘랐어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군대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내 언론사에서 활동할 때 비폭력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하려 했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책을 찾아보고 절차를 알아보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워낙 강하게 만류하셔서 결국 입대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서에 수감 중이신 분의 이야기도 결정적이었죠. 교도소에서의 삶이 상상 그 이상인 면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접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든지 종교적 이유 때문이예요. 순수하게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틀어서 15명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아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병역기피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피자는 군대를 피해서 해외로 가는 등 편법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군 면제를 받고, 거부자는 교도소를 가거든요. 거부와 기피는 명확하게 다른데 같은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걸 짚고 넘어가죠.”

--------

“군대의 반작용으로…(하하).

8’00”

“영장을 25살까지 미룰 수 있거든요? 끝까지 미뤘는데, 병역 거부도 알아보고 있었어서. 그것도 실제로 하신 분도 교도소에 만나러 갔었고.

전역 27살 말에 해서

9’00”

“매일 감는 건 무리고 이틀, 귀찮으면 삼일에 감고.

9’20”

“취업하기 전 마지막 기회다. 취업하고 나서는 못기르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도 길렀었는데, 단발 정도로 기르다가. 군대가서 자르고. 수염도 약간 길러봤었고.

자르는 게 더 번거로워서.

머리가 길면 또 머리가 긴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자친구를 사귈 땐 여자친구를 이해해보려는 노력 중의 하나로 하기도 했었고(하하). 여자친구는 처음엔 제가 머리 기른다고 했을 때 불편해했는데, 군대 다녀와서 두번째로 기를 땐 덜 불편해했어요.

(특이한 머리에 대한 이야기)

12’00”

“예술가냐는 물음도 많이 들었어요. (특이한 머리를 하면) 시선의 빈도부터가 다르고. 걸어다닐 때 쓱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화장실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고(하하).

12’43”

클러스터에 저처럼 머리가 긴 남성이 한분 더 계신데, 저랑 같이 스터디 하는 분들도 많이 헷갈려서 그분한테 인사하는 일도 있고 해요.

13’30”

기를 수 있을 때까지 길러보고 귀찮음이 도를 넘을 때 자르려고요. 나중엔 잘라서 기부할 생각이에요.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남자 긴머리 스타일링의 한계는 딱 어깨 정도더라고요. 지금은 풀면 허리정도까지 내려오는데. 전역하고 한번도 예수님처럼 죽 풀어놓은 것 밖에 없고.

펌을 해보고도 싶은데 궁금은 하지만, 한번 시도하면 망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죠. 망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렵고 기부하려면 머리가 튼튼해야 해서.

단발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묶이지도 않고 머리띠를 해도 이상해서. 특히 옆머리가.

17’00”

특이한 스타일을 하며 일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 피신 끝나는 날 처음보는 분이 제 자리로 “형님 저 팬입니다" 이러면서 왔어요(하하). 평가도 안해보고 정말 생전 처음보는 분이었는데. 그분 저 프로피 사진만 보고, 너무 머리 길러보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와서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과정 안할 거라서 못보는데 꼭 인사하고 싶었다고. 42에서 유독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18’00”

사진전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진기 들고 온 관람객들이 찍어봐도 되냐고 하시곤 나중에 사진을 보내주시는 일도 있었죠. 거절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도 재미있으니까(하하).

19’00” ~ 24’00” 사진관 이야기 입시 사진 이야기

24’00” 군대

“비폭력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셔서, 그때 약간 다양한 종류의 신념이 싹트던 때여서 저도 안갈 수 있으면 안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군대 내부의 문화도 겪고 싶지 않고 나도 물들 것 같아서 가기 싫어서.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책을 찾아보고 절차를 알아보고 했는데. 부모님이 워낙 “제발 그건 그대로 해달라" 하셔서. 이전에 대학교 자퇴 문제로 크게 싸웠기 때문에 너무 무리시키는 것 같아서 그건 그냥 갔죠. 부모님을 몇차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더 사이가 좋기도 해요. 이미 큰 고비를 몇번 넘겨서. 훨씬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죠.

26’30”

“대학 다닐 때 학생 기자를 했는데, 그때 취재를 다니며 알게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그 정보를 활용해 살려고 대학을 나왔는데, 그 일환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어서.

처음에는 총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는데, 자료 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돼 동참을 하고 싶었죠. 결정적인건 부모님의 의견도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서에 수감중이시고 한두달 뒤에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을 면회가서 뵀는데 그분이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교도소에서의 삶이 절대 상상하는 그 이 상인 면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듣고…

28’00” 어떻게 만나는지

일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80% 이상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던지 종교적 이유. 순수 양심적 병역거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틀어서 15명 정도로 얼마되지 않아요. 그분들끼리는 보통 개인적 신념을 선언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거든요? 정당에서 선언을 하든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든, 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군대를 가거나 교도소를 가거나 택 일이죠. 최근에 대법원인가에서 예비군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고. 그래도 군대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까지 대체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는 무조건 갈텐데. 사회적 복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채택이 안되고 있고.

(부모님이 말리실만 했네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갈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30’00” 귀농

자퇴하고 준비하던 게 군대 안가는 거랑 귀촌 귀농이랑. 귀농귀촌도 아직 관심이 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도 아직 이슈를 따라 가고 있고, 인터넷에서 논쟁이 있으면 열띄게 참여하기도 해요. 많이 와전돼 있는 게 양심적 병역거부하면 병역기피자를 생각해요. 그런데 기피자는 피해서 해외로 가던지 의도적으로 뺀 경우고, 거부자는 교도소를 가거든요. 기피자는 교도소를 안가요. 기피자는 편법을 써서 면제를 받죠. 거부와 기피는 다른데 같은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항상 얘기하죠.

(비꼬는 것도 많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런 얘길 많이 하셨겠어요 이해 못하는 친구도 많았을 테고.)

다른 친구들보다 책이나 자료를 정리하는 게 더 능숙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은 자급자족이 목표였어요. 소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는 몇천평씩하는 대농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몇백평씩 농사지어서 먹고 살 것만 해결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목적이 도시의 삶에 질려서인가요?) 자급자족은 하도 20대 때부터 뭐 먹고 살거냐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꼼도 약간 있고. ‘먹고 살 건 내가 지어서 먹고 살겠다'. 그리고 그 당시 앞서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경운동 취재하면서 만난 분 건너건너.

귀농은 준비 거의 다돼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연애를 시작해서(하하) 들어오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경주에 도리마을이라고. 산골에 몇가구 안되는… 비인가 대안학교랑. 제가 어딜 가도 제 또래에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때 21살이었으니까요.

귀농준비가 먼저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심을 가진 건 23~24살일 때였어요.

38’00”

코딩은 대학교 때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재밌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공부할 때 42서울을 알려줘서. 테스트 했는데 우연히 그때… 헤어진지 1~2년 된 것 같아요. 2기 모집했을 때 알았어요.

43’00”

코딩 잘 맞기는 한데 항상 블랙홀에 쪼이는 느낌은 있고, 꾸준히 성실한 걸 잘 못해서. 여기튀고 저기 튀는 걸 좋아해서 그런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아직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 할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찾는 중이예요.

48’30”

귀농귀촌도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보다 관심들이 훨씬 많은 게, 청년 귀농학교 같은델 가보면 10년 전 20대 초반일 때 갔을 때는 저밖에 20대가 없었어요. 40대 중후반, 50대인 분들이 마음만 청년이면 청년 아니냐며 오곤 했어요. 그래도 참가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자'며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 4~5년뒤 가보니까 20대가 꽤 있는 거예요. 네 다섯명? 귀농 2세도 있고. 생전 처음하는 분도 있고 남녀 구분 없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데 가게 되면 보통 집 짓는 데도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 비용도 훨씬 적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사는 것보다 훨신 적게 들어요. 방법은 많은데 흙으로 짓는 것도 있고, 특수 소재가 있는데 벽돌같이 쌓아두고 짓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내부 환경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흙은 양파 망에 넣은 다음에 물에 축 적시고 나무 틀 같은데 딱딱딱 쌓으면 그게 엄청 견고해요. 유럽에서 온 건축법 같은 건데, 그게 비용이 엄청 싸거든요. 몇천만원 내외로 집을 지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50’00” 혼자 공부하는 것과 같이 공부하는 것 , 게으름 병이 있어서 13일 딱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